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불길높이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검 덕 광 업 련 합 기 업 소 에 서

천 길 지하막장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금 글 광 산 의 일 군 들 과 광 부 들

새해의 보람찬 진군이 시작되어 한달 남짓한 나날이 흘렀다. 연속진공, 연속발파의 우렁찬 동음이 금골의 지하막장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광석을 실은 광차가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다.

—광산의 30여개 모든 소대들에서 매일 달력전 계획을 넘쳐 수행!

—광산적으로 1월계획을 120%로 수행!

인민생활대진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해방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첫 전투에서부터 편입 혁신의 기상을 펼쳐가고있는 금골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개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광산의 일군들은 지난해말부터 올해전투의 승리를 위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게 작전하면서 대중을 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그러하여 막장들에 압축기들을 증설하고 그

능력을 높였으며 10여개의 채굴장들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올해 첫 전투를 본래있게 내밀수 있는 담보로 되었다. 이렇게 승리의 열쇠를 전투전선에 마련하고 배심들처럼 새해의 첫 진군길에 나선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기세는 충천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기고 현장에 달려나간 일군들은 경제신동의 복소리를 힘있게 울리었다.

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언덕갱, 4.5갱, 승리갱, 영광갱의 지하막장들에는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지 몇시간만에 《오전중에 하루계획 초과완수》, 《오늘계획 150%는 문제없다》 등의 속보들이 편이어나 불었다.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로를 무기로 열어가라.

천길지하막장의 뜨거운 열기를 이파랑하저 양구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는 광부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맹세가

끓어번지고있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4분기 광석생산계획을 끝내겠다고 결의하신 고경찬채광소대원들이 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채굴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내어놓아 매일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이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광산의 모든 소대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땀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은덕갱의 광부들이 높은 목표를 내걸고 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지난해 새로 꾸려진 은덕갱막장은 심부에 개되어있고 암질이 굳어 여러모로 생산조건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빈틈없는 작업준비를 갖추고 생산에서 편입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막장이 깊어질수록 압축공기를 원만히 보장하여 착암기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왔다. 소대마다 압축공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이 이루어

어지고 바람새는 요소를 찾got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착암기들의 가동률을 보장하였다. 새로 전개된 채굴장에서 광석생산을 다그치고있는 광부들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발파효율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법도 창안하였다. 그리하여 채굴장마다에서 한번 발파에 종전보다 1000t의 광석을 더 퍼가는 혁신이 일어났다.

《광석은 넘겨말라!》 이것은 심부에서 기동진 광석발파를 타고앉아 증산투쟁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은덕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였다.

유색금속광물생산선상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광부들의 뜨거운 열의는 광산의 운광소대들에도 차넘치고있다. 승리갱 차량수정년동력대원들은 광산적으로 운광작업의 많은 몫을 해제끼며 혁신의 불길을 지퍼올리고있다. 운광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정장이 조성될 때마다 결사의 각오를 안고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그들은 20대의 팔팔한 청년들이다. 불비 쏟아지는 전파의 나날 한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리수봉영웅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이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영웅적 위훈으로 빛내고있다.

《그이 난관이 막아선다고 하여도 강성대국으로 향한 우리의 진군속도는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돌격대장 김광일동무의 말에 승리를 확신하는 배심과 담력이 비껴갔다.

심부지구의 광석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있는 금골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렇게 새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었다. 난관도 많고 해를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우리는 이과 로동계급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간간철성의 심부들과 의지를 간직한 이들의 광부들이 수천척 지하막장을 지켜서있기에.

은 덕 의 하 루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대한 취재활동에 열여섯이었던 우리는 은덕에 자리잡은 제3선광장을 찾게 되었다.

어 비이 수령님 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일터에서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 판철을 위해 헌신하고있을 그곳 로동계급의 승결을 지면에 담고싶어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생의 신심과 혁명적관심을 가지고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해발고도는 은덕의 추위는 간단치 않았다.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는 모든것을 얼었다. 그러나 아무런 기운을 부리는 추위도 얼리지 못한다고 있었다. 그것은 높은 광물중산과로 조국을 받들어가려는 이과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이었다.

공-하 고 울리는 발파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저광장에

제 3 선 광 장 에 서

에 올라가보았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광석들이 추위에 얼어붙어있었다. 방금 발파작업을 한 사람들에게로 다가간 우리는 낮은 사람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취재파장을 통하여 낯을 익힌 지배인 최재범동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발파작업을 한것이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새해 첫 전투에서 이곳 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돌격구령을 내리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원형-1 귀전을 스치는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으로 삼삼오오 메를 지어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얼어든 배낭을 녹이기 위해 은덕으로 올라오고있는 너털돌격대원들이었다. 동행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전날밤에도 양상장으로 가는 도리가 얼음에 뒤덮였다는 소식을 듣고 설비부속품과 자재보장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동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도로를 개척한 너털돌격대원들이라고 하였다.

광물중산의 돌과구를 여는데서 남편들을 도와 큰 몫을 맡아 해제킨다고 자랑담아 이야기하는 이곳 일군의 말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의 맘을 바쳐가는 집단의 녀성들이 더더욱 돋보였다.

생산현장은 말 그대로 불보다 더 뜨겁게 끓어올랐다. 마광기,

은 덕 의 하 루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공무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막장들에 필요인 설비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광물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공장의 일군들은 직장들을 맡고나가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도록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참모부일군들은 모든 설비들이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운반계통과 선광장들에 요구되는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생산보장해나가기로

분구기들의 힘찬 동음은 우리의 마음을 호탕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우렁찬 동음속에 비껴있는 검덕로동계급의 깨끗한 광명을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보면서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새해전투에 들어가기 전날부터 1과쇄직장의 중대장들이 리경원, 리정남동무들이 중대원들과 함께 분구기에 달려붙은 얼음을 깨내고 설비들을 재 정비하면서 첫날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남 모르는 위훈의 자욱을 새기었다. 있을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대책을 취한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모든것을 얼리는 추위속에서도 육중한 선광설비들은 우렁찬 동음을 울리었다.

우리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삼을 들고 조구릉에 불을 지피며 얼어든 광석을 배출해내는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과 만났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연합기업소 일군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취재를 마치고 평을 내리는 우리에게 은덕의 하루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은덕의 하루는 깨끗한 광선과 비대한 혁명적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는 이곳 로동계급의 창조와 위훈의 하루, 승리로 향한 소중한 하루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우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검덕 지하막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박호철채광소대원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흐뭇한 풍류높은 채광장을 타고앉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남편자 첫바람을 잡은 착암공들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린다.

착암기를 연세게 틀어잡은 김철로, 김광철동무들의 구리빛얼굴에는 천길암벽도 단숨에 멀어질 기세가 역력히 비껴갔다. 착암기가 용을 쓸 때마다 정날에선 불꽃이 튀고 회부연 돌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얼마후 한창 기운차게 돌아가던 두대의 착암기가 거의 동시에 멎는다. 광부들이 서로 마주보며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또다시 천공공간을 줄인것이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강장 최철동무는 이 속도로 나가면 오늘계획도 160%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우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검덕 지하막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박호철채광소대원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흐뭇한 풍류높은 채광장을 타고앉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남편자 첫바람을 잡은 착암공들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린다.

착암기를 연세게 틀어잡은 김철로, 김광철동무들의 구리빛얼굴에는 천길암벽도 단숨에 멀어질 기세가 역력히 비껴갔다. 착암기가 용을 쓸 때마다 정날에선 불꽃이 튀고 회부연 돌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얼마후 한창 기운차게 돌아가던 두대의 착암기가 거의 동시에 멎는다. 광부들이 서로 마주보며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또다시 천공공간을 줄인것이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강장 최철동무는 이 속도로 나가면 오늘계획도 160%는

현지 보도

문제없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철로와 김광철동무들의 전투적호소를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소대의 광부들은 통이 큰 투쟁목표를 내걸었다.

—매일 고대계획을 1.5배 이상으로!

목표를 이렇게 내세운 소대원들은 집체적지혜를 모아 천공방법과 발파방법을 개선하면서 설비마다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들을수록 가슴후덕해 주는 이야기이다.

착암기들의 동음이 일시에 멎는다. 천공작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발파준비!》 소대장 박호철동무의 호기 있는 구령소리가 막장에 메아리친다. 드디어 막장을 들었다놓을듯 울리는 드세한 발파소리...

귀를 강구고 속셈을 하던 소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넘친다.

《영남없이 광석이 무더기로 몽정 내려앉았을것입니다. 저 발파소리만 듣고도 짐작이 갑니다.》

혁신에 넘쳐 말하는 소대장을 따라 현장에 가보니 넓은 막장에 광석바다가 펼쳐졌다. 《현장에서 500여t의 광석은 더 뽀글뽀글입니다. 우리는

이 기세로 삼년된 광물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겠습니다.》

소대장의 말을 증명하듯 다른 막장들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울려퍼지는 총공격전에서 날아날마다 기적과 위훈만을 펼쳐갈 검덕로동계급의 심장의 맹세를 담은 드세한 발파소리가 높이 울린다.

예비부속품을 제때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공무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막장들에 필요인 설비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광물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공장의 일군들은 직장들을 맡고나가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도록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참모부일군들은 모든 설비들이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운반계통과 선광장들에 요구되는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생산보장해나가기로

경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하고있다.

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수직중심의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광물중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설비조립직장의 로동자들은 금골광산의 압축기중설과 관련하여 더 요구되는 배관공사와 설비조립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무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광물생산을 계속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해결한 다른 하나의 비결은 기름짜는 기계의 실수율을 높인 것과 함께 종자를 보관할수 있는 저장고를 훌륭하게 건설해놓는데도 있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서 생산한 씨앗의 부패변질을 막고 매달 필요인 양만큼 기름을 생산하여 그 공급을 보장하였다.

농장에서는 가을에 작업반들에서 가져온 씨앗량과 기름생산량, 찌꺼기를 일일이 장악하였다. 그리고 기름과 찌꺼기를 작업반들에 다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것은 기름을 짜고난 찌꺼기에 단행질, 탄수화물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 좋은 집짐승먹이로 유용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니 기름공급도 해바라기씨앗을 생산한 양만큼 끊고루 되었고 생산자들이 심지 먹을 불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들깨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는 기름을 많이 생산하였다.

지난해에도 이 농장에서는 해바라기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는기름을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이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먹는기름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결의하고 기름작물농사를 적기에 일조시키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완강한 실천력으로 열여가는 지름길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의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보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공동사설과업판철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계하고 추진하면서 깊은 사색과 연구, 면밀한 타산을 잘 안배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단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게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싸움의 승패는 지휘관들의 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올해의 총공격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매개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공동사설과업판철을 위하여 사색을 얼마나 깊이하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가에 올해전투의 승패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이 년초부터 이 사업을 잘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새해 첫 전투로 시적인 법위에서 벌어진 기름실어내기를 옮겨 추동한 실례를 놓고 보자.

공동사설이 나오자마자 그 사상과 정신, 기본내용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기름실어내기준비정형에 대해 알아본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동무는 무엇인가 생각되는바 있었다. 물론 시안의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종업원들, 가두녀성들까지 펼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이 되어있고 해당하는 구조들을 제시하는 등 분위기조성에도 관심이 돌려진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일군들이 거기에 만족하며 새 일군을 창밖적으로 떠 찾아가지 못하는것은 미흡한 점이였다.

—우리는 기름실어내기를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으로 대해서 안된다. 우리는 기름실어내기를 계기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고자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그 준비부터 잘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책임일군은 이러한 립장에서 일군들이 기름실어내기전투를 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자기의 직능상요구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발달을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가기로 이끌어주었다.

일군들은 기름실어내기전투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살을 에이는듯 한 맹점 낚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솔선 기름질통을 지고 내달리면서 전투의 정황

파 조건에 맞게 벌여가는 시당 일군들의 능란한 정치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었다.

그러하여 시에서는 그날 하루동안에만도 수천t의 질 좋은 기름을 농장밖에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 준비에 큰 힘을 넣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장부담당무를 비롯한 시당책임일군들은 각 부서 일군들의 공동사설학습이 올해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년간작전의 옳은 수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냈었다.

—에너지 책임일군들은 일군의 공동사설학습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학습내용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책임일군들은 공동사설학습을 담당 단위 사업과 결부하여 실속 있게 하는 과정에 걸려서 나온 씨앗을 뿌리고 풍만한 수확을 안아오려는 그들의 새해 과제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게 되니 공동사설학습 과정이 단순한 학습과정이나 아니라 위원회적으로나 부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실질한 일들을 하는 특색이 확고하고 옳은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정수

책임일군들은 공동사설학습을 단순화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단원일군들의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과정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이것이 시에서는 그날 하루동안에만도 수천t의 질 좋은 기름을 농장밖에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 준비에 큰 힘을 넣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장부담당무를 비롯한 시당책임일군들은 각 부서 일군들의 공동사설학습이 올해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년간작전의 옳은 수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냈었다.

—에너지 책임일군들은 일군의 공동사설학습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학습내용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책임일군들은 공동사설학습을 담당 단위 사업과 결부하여 실속 있게 하는 과정에 걸려서 나온 씨앗을 뿌리고 풍만한 수확을 안아오려는 그들의 새해 과제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게 되니 공동사설학습 과정이 단순한 학습과정이나 아니라 위원회적으로나 부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실질한 일들을 하는 특색이 확고하고 옳은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정수

제함을 받고 땀 흘린 보람

허천과수 농장에서

허천과수농장은 서는 몇해전부터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 높은 들깨기름, 사람의 건강과 병치료예방에도 좋은 해바라기 기름, 살구씨기름 등 여러가지 먹는기름을 생산하여 집집마다 공급해주고있다.

이 성과는 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농장일군들의 높은 지향과 불같은 열정이 낳은 열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의 먹는기름문제를 풀자면 기름작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승고한 뜻을 새겨볼수록 농장초급당비서인 김희춘동무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어찌 선군시대 당원이라고 멋있게 말할수 있겠는가. 거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 우리 농장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야) 그날에 다진 맹세대로 그는 키낮은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제함을 받고 땀 흘린 보람

허천과수 농장에서

서 상봉 제3작업반, 통원 제6작업반원들은 면적을 늘이고 가구기를 잘하면 얼마든지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풀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었다.

당시작 해바라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적었던 근로자들 도 적극 펼쳐나 그해중으로 자가생산을 부쩍 늘이고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심었다. 가을에 많은 기름이 생산되어 집집에 공급되자 이들은 먹는기름문제의 해결방도의 하나가 해바라기를 많이 심는다고 하면서 더욱 분발해나갔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 해바라기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기름생산을 늘이도록 유도한 사업이다. 씨앗물기를 비롯한 영농시기별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바르하도록 작업반별로 일군들을 담당시켰고 당면한 영농총화때마다 해바라기농사정형에 대하여 총화를 짓곤 하였다. 이 과정에 잘한 작업반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과잉농사와 함께 해바라기 농사에도 힘을 냈었다.

이 농장에서 먹는기름문제를

제함을 받고 땀 흘린 보람

허천과수 농장에서

고를 훌륭하게 건설해놓는데도 있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서 생산한 씨앗의 부패변질을 막고 매달 필요인 양만큼 기름을 생산하여 그 공급을 보장하였다.

농장에서는 가을에 작업반들에서 가져온 씨앗량과 기름생산량, 찌꺼기를 일일이 장악하였다. 그리고 기름과 찌꺼기를 작업반들에 다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것은 기름을 짜고난 찌꺼기에 단행질, 탄수화물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 좋은 집짐승먹이로 유용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니 기름공급도 해바라기씨앗을 생산한 양만큼 끊고루 되었고 생산자들이 심지 먹을 불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들깨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는 기름을 많이 생산하였다.

지난해에도 이 농장에서는 해바라기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는기름을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이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먹는기름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결의하고 기름작물농사를 적기에 일조시키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탄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안고

개천탄 광에서

새해를 맞으며 개천탄광의 중요성이 자리잡고있는 봉담천기슭에 탄부들을 위한 영양식당이 새로 열면서 석탄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탄부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탄광조급당위원회 일군들은 탄부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이미 있던 단층건물을 헐어버리고 2층으로 된 영양식당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건설할 작전을 짜고 건설자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탄광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탄부들이 먹을 불수 있게 건물들 건설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수 있는 훌륭한 건물로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었다.

초급당일군들은 탄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안고 식당의 조망과 공경화, 직관물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을 돌려 가장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건설자들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하루일을 마친 탄부들이 상쾌한 기분속에 식사를 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영양식당의 1층 식당에서 들어서면 밝은 불빛에 어울려 시원하게 안겨오는 큰 풍경화가 탄부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겨울처럼

알른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벽면들을 차지한 그림들과 건강상식자료를 비롯한 직관물들은 탄부들에게 새로운 희열과 망망,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탄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성속에 일떠선 영양식당은 탄부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며 그들을 석탄생산투쟁에 적극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로동통신원 전 순 의



광동사설과 김철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철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보산계철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은하수 《설명절음악회》 진행

【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은하수 《설명절음악회》가 4일 만수대에숙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음악회장은 인민생활대교의 불길높이 강성변영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희망찬 설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애국가와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합창 《우

리 민족 제일일제》, 《강성부흥아리랑》, 녀성 3중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녀성 6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혼성 2중창 《아름다운 생의 자욱 새기여가자》,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력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있어 주체성과 민족성이 더욱 활짝 꽃피고 인민이 단복을 누릴 강성대국의 그날이 다가오고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음악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의 명도밑에 끝없이 휘황찬란할 김일성민족의 배일을 확신하였다.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군밤

타령》, 관현악 《양산도》, 민속기악과 바얀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를 비롯한 종목들은 절은 민족적정서와 향취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도따라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전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명곡 《2월은 봄입니다》에 대하여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길에 영원한 봄노래가 있다.



소백수가 애들꽃이 피었다

눈덮인 백두산명령에 따라서 봄빛이 찾아들었다. 초선의 봄이 시작되는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소백수가 애들꽃이 피었다. 일찍 버들꽃이 피어나는 희한한 자연현상이 펼쳐졌다.

올해 백두산명령에서는 매년 없던 강추위가 계속되었지만 지난 1월말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면서 2월 1일에는 낮기온이 -7.4℃가 되었다.

버들꽃이 핀 2일 낮기온은 -6.4℃였다.

소백수가 애들꽃이 피어나는 것은 이따기나 무지개처럼 나타나서 신비의 세계를 펼쳐

며 활짝 피어난 하얀 서리꽃들이 봄빛이 함초름히 방울졌다.

낮 2시경, 백두산명령고향집주변의 구호나무들이 서있는 숲가늘에 뿌리를 박은 버드나무에 소담하게 피어난 버들꽃을 보며 강사들과 답사자들, 기상관측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목적자들중의 한 사람이 이 고장에서 20여년간 살아온다는 백두산명령기상관측소 조강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이 버드나무에 버들꽃이 먼저 피어나는 것이 더욱 신기하다고 한다.

이 소식은 나래가 돌듯 샅샅이

설명절을 맞으며 평양시검찰소 초급당비서 림종근동무는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내는 축하연설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벌써 몇번이나 읽어보는 축하연설을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름, 모든 단위에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인들을 진열육서로 사랑하고 불심량면으로 성의껏 원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설에서는 천리방선의 우리 초소 군인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오듯 들렸다.

《뜻깊은 설명절을 맞는 시검찰소 전체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들을 위해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여준 동지들의 진심어린 원호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신제에 마음도 뜻도 걸음도 따라세우며 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았으며 거기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의 그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변함없는 애국의 한 모습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살의 긍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설명절분위기는 저녁이름이 깃들기까지 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맞추듯 세 사람이 나란히 승리자동차면합기업을 소 향한 도로로 걸어가고있었다.

그들은 덕천시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김정식동무와 안해석성동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김남우였다.

돌아보면 어느덧 몇해가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자동차면합기업을 현지 지도하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그날부터 말은 하루일을 끝낸 저녁무렵이면 스스로 기업을 향단조직장을 찾아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그

뜻깊은 설명절을 맞은 날 저녁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또다시 승리산으로 향하는 그들부부의 가슴은 어느때없이 뜨거워졌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도 아니고 몇해째 매일 저녁마다 승리산로동기업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실정직히 지원하는 이들부부들의 시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누구나 쉽지 않은 애국자부부라고 부른다. 이제는 편합기업을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그들부부를 자기 종업원처럼 허물없이, 친근하게 부르며 대대한다. 몇해라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김정식동무는 어느덧 향단조직장이 된다하는 프레스동무로 어깨를 겨루게 되었으며 석성동무는 견고도 여운 일출시켜 하려 로동자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마를 모르는 샘처럼 그들부부에게 웃고 즐거워하는 그들부부의 애국의 뜨거운 마음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설명절을 맞은 날 저녁 김정식동무의 가정은 어느때없이 설레이었다. 온 가족이 기쁨에

넘쳐 웃음꽃을 피웠다. 뜻깊은 설명절 문득 아들 남우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오늘은 승리산에 안 가나요?》

《? !...》

《이맘때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승리자동차면합기업을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든지 기업을 오시면 꼭 만나뵙고 기쁨을 드리겠다고 말씀이예요.》

이제야 그 말을 듣고는 김남우가, 휴식날도 쉬지 않으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기도 찾아주시는 아버지가 김정식동무는 눈시울이 불그스레해졌다.

《그를 아들을 겨안으며 말하오.》

《그때, 우리 함께 승리산으로 가자.》

그날 저녁 승리산으로 향하는 그들부부의 가슴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뜨겁게 지열들었다. 절절한 그리움은 잊을수 모르는 힘과 열정을 그들의 온몸에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고결한 도덕이리로

설명절날이었다. 어특해 집집의 굴뚝에서 흰연기가 피어오르던 때에 신정리의 로당원인 김원호로인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로당원동무를 비롯한 신정리동무들 일군들에게서 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로인은 눈물만 흘릴뿐이었다. 명절날이 아니라도 늘 이렇게 찾아와 건강을 넘어해주는 일군들이었단 것이다.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행위에 있어서 어길수 없는 의무입니다.》

해마다 영봉기이면 관리일군들과 함께 리당일군들도 드바쁘다.

지난해말 어느날도 작업반에 나가 화선정지사업을 진행한 리당비서 로상현동무는 돌아오자바람으로 관리위원장을 찾아가 만났다. 종일 작업반을 돌면서 생각하던 한 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던 끝에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매칠후이면 김원호할머니가 여든셋살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김원호할머니는 한생 땅을 가꾸며 알뜰중산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서 로당원이었다. 전선현호의 길에서 당원의 영예를 지닌 그는 남편이 전사한 소식에 절망하고도 분연히 보람을 붙여잡고 눈물을 하였다. 며 뜻밖의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도 슬픔을 이겨내며 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높이 알뜰중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이런 로당원을

천리방선초소에 바쳐가는 지성

평양시검찰소에서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뜻깊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림종근동무의 눈앞에 마치 천자시들의 모습이듯 사전에서 본 초소군인들의 얼굴이 한 명명명 떠올랐다.

(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말인가?)

연설을 청상 한옆에 밀어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선군명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돌려주시 한말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신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안보중대에 둘러서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시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고 일한 해 대대관원이 사수되리 들어

누가 보건말건

선천군상수도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중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은 양수장들과 수선지들에 수시로 나가 결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한편

종업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물공급에 지장없도록 양수장들의 기계를 보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불리한 수도관을

비록 남들의 눈에 선뜻 띄이지 않는 곳에서 양수기들을 돌리고 땅속을 파헤치며 수도관들을 보수하면서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떤 명에나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로동동원원 차 춘 권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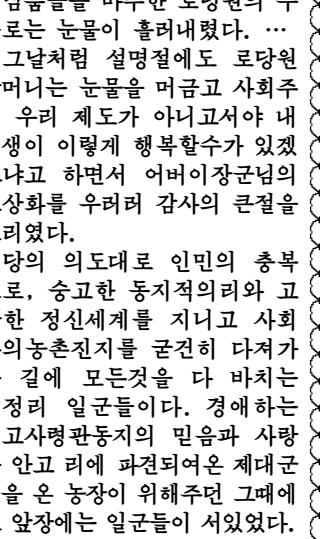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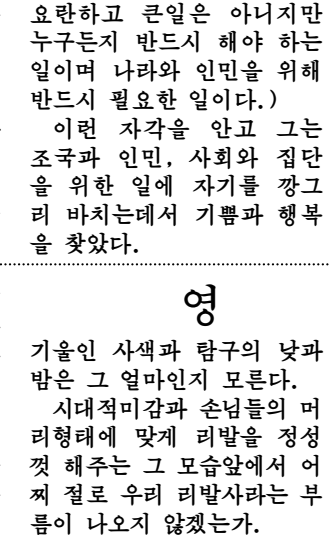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설명절을 맞아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설명절을 맞아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설명절을 맞아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당국대화의 실현은 북남관계개선의 선결과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은 지금 해내의 온 겨레의 커다란 지지와 응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애국의 열렬한 호소에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반드시 도래하게 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있다.

호소문에서 청명된대로 북남당국대화 조속히 실현되어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이 활성화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당국대화의 실현은 북남관계개선의 선결과제이다.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다시 말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남당국자들은 겨레의 숙원인 통일번영을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책임을 안고있다. 북과 남은 서로 싸우려는 절대로 안될 한피줄을 이은 겨레이며 북남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민족의 단합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며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대화와 협력을 실현

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은 북남사이의 격계구조를 허물고 민족내부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며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해준다. 북남대화에서 기본은 실천과 책임을 가진 당국대화이다. 당국대화의 실현이자 곧 북남관계개선이다.

당국대화의 실현은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며 민족사의 엄숙한 부름이다.

지금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을 일일 천추 갈망하면서 우리의 폭넓은 북남대화제의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화합과 평화의 새봄이 오기를 고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악화되어 시작한 북남관계는 지난 해에 전성발발의 최극단상향선을 치닫았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번영을 앞당겨야 할 때에 3년간이나 동족대결에 제부와 시간을 헛되이 소모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아닐수 없다. 그때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세기와 년대를 넘어서 세월의 년륜을 예순여섯길 세기도록 반목질시하며 대결하고도 아직 그것이 모자란단 말인가. 그사이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6.15 통일시대의 소중한 열매들이 사라진것은 이 얼마나 갈라진 혈육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한을 품은채 떠나간 사람들의 또 그 얼마나가. 이러한 비극적사태를 더이상 시련을 지속시키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민족사적임무이다. 60여년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는 대결은 분열과 당국의 길이며 우리 단합민이 통일과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겨레 누구나 그때는 다 몰랐지만 오늘 더더욱 그러하지는 6.15 통일

시대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는 대결상태를 털어버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따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었다. 지금은 겨레가 서로 찾고 부르며 북으로, 남으로 오가던 그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북과 남이 겨레의 지향, 시대의 부름에 화합하는 길은 바로 당국대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나간다면 우리 민족끼리 열매든지 이 땅에 평화를 안아오고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울수 있다.

당국대화의 실현은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방도이다.

북과 남이 민족분열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한 오늘의 위기를 가지자면 실천과 책임을 가진 당국이 나서야 한다. 지금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중대사건으로서 그것은 대부분 당국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당국대화를 풀지 않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필장과 자제가 아니다. 오늘의 엄중한 사대관계에서 당국은 응당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온 세계가 평화와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유대 조상반도에서만은 반목과 절망,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속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을 그대로 방임해두었다. 지금이야말로 대립을 격화시킬 때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민족의 화로를 열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폭넓은 대화제의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뜨거운 진정과 야망이 그대로 드러내져 있다. 실사 과거

가 어떠한 민족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려는 우리의 립장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당국이 대화에 응해나서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우리의 대변한 군사화담계로 북남 대화의 장애물은 모두 제거되었다. 따라서 남조선당국은 우리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지체가 일어나야 한다. 동족의 대화제의에 의구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하며 당국대화의 실현에도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조성하게 된다. 진정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과거에 구속될것이 아니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책임은 당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민족을 위해 자기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당국대화에서는 마땅히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북남사이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당국대화에서 논의되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될것이라는 의심할바 없다.

남조선당국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여야 두들 하였는가 하는것은 력사와 후대들이 평가하게 될것이다.

최철순

민속전통의 중요성도 깨우쳐주시며

이 땅 그 어디 가나 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공기처럼 흐르는 내 나라, 내 조국! 국장마다에서 건드려진 민요가락이 울려나오고 유아하고 부르러 온 조선치마저고리를 펼쳐입고 아름다운 한껏 들구는 우리 여성들의 향연에 찬 웃음소리 하늘가에 깔없이 메아리친다.

연미우기, 뽕이치기, 제기차기 등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민속놀이 흥겹고 도취의 금양봉 사당들은 구수한 민속 음식의 향기에 이끌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거린다.

이 모든것을 대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과 문화를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전통은 전례없는 좋은 관습들이며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재부와 정서다반영되어있습니다.》

주체 69 (1980)년 3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게 된 일군들은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들었다.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시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러... 3.1인민봉기기념일? ...그런 모를가봐 문자는 없으셨을텐데...)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것이 최승조씨 일군들이 얼굴을 붉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오늘이 바로 정월대보름날이라고 이르시면서였다. 그제야 일군들은 그날이 바로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대보름날이고 이날을 큰 명절로 쇠어는 조상전배의 풍속에 대하여 생각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가지고오신 조상전배를 맛보라고 하시며 일일이 들려주시고 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빙절풍속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설빙절과 같은 명절놀이에서뿐만아니라 로동생활, 문화생활, 의식생활, 도덕생활 등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민속전통을 창조하였다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그제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물으신 뜻을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속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예술도리,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있고,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세계주의반동들이 몰아오는 《세계화》바람에 민족전통과 민족성이 사멸되어가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과 문화가 남아 빛을 뿌리며 개발발전하고있다.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대대손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명도의 순결을 떠나 우리 애제 민족의 향기와 흥취가 진하게 풍기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처럼 민속전통을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고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우리 사업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분은 없다. 조국과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적극 살려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과 문화를 빛내고 그것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위해 온갖 로고를 기울이고계신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찬란히 개화민발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을 평도자로 높이 모신 끝없는 궁지와 영광을 길이 건하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고무추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송영석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전국협의회 진행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2011년 전국협의회가 1월 22일과 29일 통일본과 사업본부 공동대표 하리다 아끼히

위원회 부의장 겸 권리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진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수 중앙본부 공동대표 하리다 아끼히

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유골조사 정형에 대한 각지 조사단성원들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어거에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수 중앙본부 단장인 박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는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유골조사 정형에 대한 각지 조사단성원들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이러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연구와 《세일조선인력사인권연간》 진행 등 올해의 활동방향이 트의결정되었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합세할것을 주장

조국통일법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와 레도이릴란드공로 협회와 1월 29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할것과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북남대화 의 협상에 응해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민족공조는 최대의 애국이고 외세국에서는 최대의 매국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각국적인 투쟁에 적극 합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규모정리해고에 항의

남조선의 대우자동차판매로 조진들이 업주측의 일방적인 대규모정리해고에 항의하여 1월 24일부터 본사를 점거하고 통성투쟁을 벌리고 있다.

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대해 참을수 없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남조선신문 《세계일보》 1월 31일부에 의하면 남조선경찰 내부에서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3대 혁명붉은기 해주의학전문학교에서

3대 혁명붉은기 해주의학전문학교에서는 지금 교원, 학생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착상 및 새 기술발표회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발표회는 올해공동시설을 받아내고 양양린 교원, 학생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이례를 띠고있다.

발표회를 이어나가는 시기 술안을 내놓은 강자정 혁명순, 강강순에 이르러는 가치있는 과학적착상들과 소논문들, 새 기술안들이 수많이 발표되고있다.

대화에 역행하는 통일인사탄압소동

의 대화와 관계개선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때에 이런 반동적인 공판놀음을 벌려놓는 사실에 주목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한 진보보통인사들에게 우리 공화국을 거머쥐고자 가혹한 형벌을 들의운것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분기기를 해치는 행동이다.

그들은 당국이 파쇼악법 《보안법》을 리용하여 사료편성원들을 법원에 기소하여 처형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할것과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북남대화 의 협상에 응해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러한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할것과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북남대화 의 협상에 응해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보안법》폐지를 요구하여 시위

《보안법》폐지를 요구하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사회주의로 동지련합 (사료편) 운영위원장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세철을 비롯한 7명의 단대성원들에 대한 최중대공판놀음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비렬한 폭압 조치

남조선의 울산지방경찰당이 1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울산지부에게 징계를 구형하였다.

아름다운 지향을 안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세부마다 깃들여있는 우리 수평년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었다.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로써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로써 찾고 지친 조국, 그 품속에서 부러운것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란 길영화동무였다. 그 나날에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누려온 나라의 행복이 고마와 그가는 눈물속에 새겨진것이 무엇이었던가.

착상 및 새 기술발표회를 활기있게

3대 혁명붉은기 해주의학전문학교에서

아름다운 지향을 안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세부마다 깃들여있는 우리 수평년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었다.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로써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로써 찾고 지친 조국, 그 품속에서 부러운것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란 길영화동무였다. 그 나날에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누려온 나라의 행복이 고마와 그가는 눈물속에 새겨진것이 무엇이었던가.

